

■ 지난해 수능 전남 수석들이 말하는 마무리 전략

수능시험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나긴 마리온의 골인지점을 앞두고 능 전남지역 문과·이과에서 수석합격을 한 장민주, 김도영 학생의 수능은 6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수능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수 6일 마무리 노하우를 들어봤다.

장민주 〈문과 수석·서울대 법학과〉

김도영 〈이과 수석·연세대 의예과〉

수능 시험 시간 따라 생활의 패턴 맞춰야



▲ 언어영역

기출 문제만 풀어보자 평가원 문제 분석을

▲ 수리영역

교과서 쭉 훑어보기 부족한 분야 집중 공략

▲ 외국어영역

하루에 1회분씩 듣기 전체적인 맥락 파악

▲ 학구영역

교과서 정독이 중요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수능은 6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건강을챙기는 것이다. 평소에 늦게 잤더라도 지금부터는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추어 생활 패턴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막판 육심을 부리는 것보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게 좋다. 지난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10시 정도에 집에 돌아와서 12시 정도에 잠을 자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언어 영역이 시작되는 시간에 두뇌 회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하고, 제일 좋은 것은 평소 하던 대로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이다.

언어 영역은 시험장까지 기준의 감을 유지해야 한다. 맞춤법이나 어법, 사자성어와 같은 문제들은 오답 확인을 하는 것도 좋고, 일반 지문 독해 문제는 EBS와 같은 공인된 문제만 풀어봐야 한다. 시간이 없으면 일주일 전부터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출 문제만 푸는 것도 괜찮다.

수리 영역은 상위권 학생들은 오답 노트 복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풀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고, 수리 나형의 경우 실제 수능에서는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도록 해야한다.

중위권 학생들은 혹시 놓치고 있는 개념이 없는지 교과서를 쭉 훑어보는 게 좋다.

외국어 영역의 경우 듣기는 하루에 1회분 이상씩 꼭 연습해서 감을 유지하고, 특히 식사를 마치고 즐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외국어 영역 시험 시간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문법이나 어휘 문제는 오답 노트 복습이 효과가 있다.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요즘 어렵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특히 윤리나 국사의 경우 교과서 정독은 아주 중요하다.

TV·컴퓨터 다 끊고 몸 관리·마음 관리를

풀었고 풀지 않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실력이다.

예를 들어 지수 로그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까지 봤던 문제집과 개념서, 오답 노트를 바탕으로 제대로 공부하면 그쪽에 자신감이 불게 된다. 그 조그만 자신감이 수능 대박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외국어영역은, 역시 언어와 마찬가지로 지문들을 읽어보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면 좋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외국어영역 준비의 노하우다. 기출이나 평가원 지문을 여러 번 질리도록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새 지문을 대하는 게 매우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탐구영역은 최근에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평가원과 기출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기 가 어렵게 틀리고 맞는지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개념을 다지는 게 좋다. 급하다고 대충 대충 보지 말고, 초심으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꼼꼼하게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6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전의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보다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해 수능을 볼 때는 1주일 동안 TV와 컴퓨터를 다 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공부할 때도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기분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썼다.

그러면서 수능 때는 다른 모의고사와 별 다른 것 없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렇기 않고 긴장을 풀고 휴식을 갖는다고 계획을 하던지 TV를 보면 수능 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시간만 더 공부했으면...'하는 식의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다.

<전남과학고등학교 출신>
/정리=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시험장에서 생소하게 느껴지던 지문도 교과서 어딘가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답노트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다. 사탐의 경우, 시간 부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시간 조절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 자습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험 시간표에 맞추어서 전 영역을 하루에 1회씩 풀고 저녁에 이를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사실 수능 일주일 전이면 그야말로 긴 경주의 마지막이다.

수능의 접수의 폭을 결정하는 건 당일의 육체적 컨디션과 마음 상태이다. 마음을 편하게 갖고, 자기 전에 30분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잘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갖도록 하자.

<목포고등학교 출신>

“실력 광주·도덕성 회복 중점”

“원칙적으로 교사의 체벌은 반대합니다.”

지난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인순일 광주시 교육감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오줌을 눈 학생에게 내린 처벌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아이가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사랑하라”는 살레시오수도회 칭립자 기톨릭 성인 돈 보스코의 말을 인용하며 체벌의 불필요함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1년간 ‘교육의 중심’에 반드시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교육신조를 바탕으로 역지사지(易之思之)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행정철학을 펼쳐 왔다. 다음은 안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감과 각오는.

▲취임과 동시에 발족한 ‘광주 교육정책기획단’이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을 세웠고, 조직개편 등을 통해 공약 실천을 이행해나가고 있다. 현안인 ‘실력광주’ 구현과 청

각급 학교에 영어 체험센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모든 영어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회화 중심의 교사 영어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빛고을 범시민 독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한자독본자료’ 개발 활용하여, 과학교육 여건 개선으로 영재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된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번 달 말 실시되는데.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공약 사항 중 하나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틀실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시책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파악해 교수·학습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의 우려처럼 결코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는데 이용되지 않는다.

-광주외고 설립 추진 상황은.

▲오는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법인 ‘태성학원’과 조율을 마치고 지난 6월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동안 신설 외고 설립 협의를 전면 유보했던 교육부가 최근 지역 실정을 고려해 광주와는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외고가 설립되더라도 임시 기관으로 전락하거나 사교육 과열 등 부작용을 드러내는 타 시·도와는 차별화하고, 외국어 영재 육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밟고 나갈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전교생 30%는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논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광주논술교육 아카데미’를 비롯해 체계적인 논술교육 정책을 위해 기획·교육·자료개발·사이버

광주외고 설립 추진 외국어 영재 육성 본연의 목표에 총력

운영 등 팀제로 추진하고 있다. 500여 명의 교사들에게 통합논술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통합 논술 동아리 35개와 자도팀 9개를 운영 중이다. 1학기 시작된 ‘광주 고등학생 논술교실’에는 1~2학년 160여 명이 참여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고등학교 2곳을 연구학교로 지정, 수준별 프로그램을 보급했으며 방과후학교 논술 강좌를 활성화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드림논술’이라는 교재를 제작·보급했으며 독서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교육복지률 실현하기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로 저소득층 학생(멘티)과 대학생(멘토)을 연결,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적·정서적 만남을 통해 기초학습에서 진로 상담 및 인성 지도까지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는 방과후학교 사업 중 하나다. 문의 062-380-4317.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대학생 멘토링 실시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시교육 정보원 대강당에서 ‘2007학년도 대학생 멘토링 멘토 연수회’를 시작으로 학기 중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번 학기 중 멘토링에는 전남대, 광주교대 등 대학생 멘토 124명과

초·중·고교생 멘티 55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로써 멘티들이 연중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교 육청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멘토 362명, 멘티 1천392명이 참여하는 멘토링을 실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RODEM 로뎀갤러리 -직수입 멘토가구-

매장여전 으로 인한 절포전리

RODEM 로뎀갤러리

대표전화: 036-250-6033-4032

백화기획상품행사

최고 70% 할인행사

최고 70% 할인행사